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22.02.15



제 9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21년 12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키르기스스탄의 Hyatt Regency Bishkek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제 9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2021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주관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였다. (관련 기사 pp.2-3)

중앙아 한교협

(관련기사 pp.2-3)

제 9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 및 2021년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

중앙아시아 한국대

(관련기사 p.4-5)

제 2 회 중앙아시아 대학생 (차세대연구자) 한국학 학술대회, 세리쿨로바 총장 한국정부 문화포장 수상

키르기스 한국대

(관련기사 p.6)

중앙아시아 한글도서 지원 및 한국문화 확산 프로젝트

카자흐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p.7-8)

2021 현지 교원 보수교육, 중핵대학사업 재선정, 신북방 한국어 교원 재교육, KF 대학원생 장학금 전달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Muratbayev 200,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제 9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21년 12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키르기스스탄의 Hyatt Regency Bishkek 에서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가 주최한 제 9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2021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온라인 강의 시대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원 양성 및 재교육”을 주제로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주관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였다. 학술대회에 대한 국내외의 많은 관심 속에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한국의 5 개국 20 개 도시, 48 개 대학 및 기관에서 100 여 명의 한국학 관계자와 40 명의 일반인 청중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개회식은 백태현 명예회장(중앙아 한교협)의 환영사, 이원재 대사(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방문단을 이끌고 일시 귀국한 바쁜 일정에서도 참석한 케멜로바 디나라 대사(주한 키르기스공화국 대사관), 비슈케크 국립대(구 비슈케크 인문대)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젊은 정치인 나디르베코프 소유즈베크 차관(키르기스공화국 문화정보스포츠청년정책부), 평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이스마일로프 박티베크 장관 고문(키르기스공화국 교육과학부)이 차례대로 축사를 하여, 중앙아시아 현지의 한국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철우 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중앙아시아 한국대)의 축사를 끝으로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이병조 교수(카자흐 국립대)의 사회로 오전에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임철우 소장의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소개”에 이어 백태현 교수(중앙아시아 한국대)의 “중앙아시아 특성에 맞춘 한국학 교원 양성 방안과 그 문제점”, 박영지 교수(고려대)의 “중앙아시아지역의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 장호중 교수(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뉴노멀로서의 중앙아시아 한국학 활성화 방안”의 발표가 있었다. 오후에 진행된 분과발표에서는 중앙아시아 각 대학의 한국학 교원 14 명과 학문후속세대 4 명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참석자들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강의가 확대된 상황에서 각 대학 한국학 교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향후 교원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대학들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집중토론 시간에는 중앙아시아 실정에 맞는 한국어 및 한국학 교재가 부족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을 찾기 어려우며 졸업자들의 취업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3 면에서 계속)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2021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

(2 면에서 계속)

중앙아 한교협은 학술대회를 마친 후 Novotel Bishkek 로 자리를 옮겨 다음 날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2013년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 정식으로 출범한 중앙아 한교협은 인터넷홈페이지(<http://canks.asia>)를 개설하고, 학술지<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연 1 회)와 소식지<한국학뉴스레터>(연 2 회)를 발행하는 등 중앙아시아 한국학 대학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부의 공용 클라우드 활용, 유튜브 채널 시범운영,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6jTRgKrV0oig8vf73xV7Yg>)

한편, 정기총회를 통하여 차년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국립동방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다. 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어, 문학, 역사 등의 분야 외에도 정치외교, 경제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학술대회를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일 동안 진행된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알라아르차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잠시 한가로운 여유를 맞볼 수 있었다.



중양아시아 한국대

제 2 회 대학생 한국학학술대회

2021년 11월 20일 제 2회 중양아시아(키르기스스탄) 대학생(차세대연구자) 한국학학술대회(이하 한국학학술대회)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다마스호텔 다이아몬드 홀(2층)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중양아시아 수교 30년을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한국학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중양아시아(키르기스스탄) 동반 성장을 위한 한국학(Korean Studies)의 역할’이었고, 세부 주제로 한류와 한국문화 분야, 한국어 교육과 연구 분야, 국제교류협력 분야로 나뉘었다. 본 대회는 주 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중양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주관하였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과 고려대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가 후원하였다.

이번 한국학학술대회에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4개국 5개 도시(비슈케크, 오시, 알마티, 아시가바트, 타슈켄트)에서 대학생 14개 팀(중양아시아 미국대, 키르기스-러시아 슬라브대, 비슈케크 국립대, 아라바예프대, 중양아시아 한국대, 오시 국립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투르크멘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차세대연구자 2개 팀(키르기스 외교아카데미, 타슈켄트 국립사범대), 연구자 5명(키르기스-러시아 슬라브대, 비슈케크 국립대, 타슈켄트 국립사범대, 타슈켄트 부천대, 아시가바트 세종학당)이 참가하였다.

각 참가팀은 서류 접수를 마감한 이후, 학술행사 전까지 1개월(2021년 10월 15일 ~ 11월 15일)의 준비 기간을 통해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자료 수집 및 공동 학습의 기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 주최 측에서는 모든 참가팀과 연구자들에게 소정의 연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주최 측에서는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한 한국학 전문가의 온라인 특강 4회를 마련하여 참가자들에게 발표문 준비에 도움을 주었다. 전문가 특강에는 손영훈 교수(한국외대 중양아시아연구소 소장), 김성인 전사무국장(한-중양아 협력포럼),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중양아시아 한국대), 백태현 교수(중양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 소장)가 참여하였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당일 대회는 백태현 교수가 총괄 진행을 하였다. 세리쿨로바 총장의 환영사와 이원재 대사(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의 축사와 우르쿤치예프 장관(키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의 축사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이원재 대사는 “한-중양아 30주년 앞두고 열린 한국학학술대회의 취지와 목적을 높이 평가하고, 이제는 중양아 한국학의 질적인 발전과 더불어 한국과 중양아시아 쌍방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기념공연으로는 중양아시아 한국대와 키르기스 한국대 연합사물놀이팀의 사물놀이 공연이 있었다.

(5면에서 계속)



중앙아시아 한국대

(4 면에서 계속)

오전과 오후에 걸쳐 총 21개 팀이 발표하였는데, 대회 주제와 관련한 각 발표자들의 주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류와 한국문화, 한국어 교육과 연구, 국제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발표가 있었다. 전체 발표자 중 5개 팀에게 우수논문발표상을 시상하였다.

한국학학술대회를 준비하고 당일 행사를 총괄 진행한 백태현 교수는 “본 한국학학술대회가 한-중앙아 국가들의 동반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는 한국학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동반 성장을 견인해 갈 한국학 인재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학학술대회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대회를 마쳤다.



세리쿨로바 총장 문화포장 수상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제 575돌 한글날을 기념해 10월 4일(월)부터 10일(일)까지 ‘2021 한글주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 ‘한글주간 누리집(www.한글날.c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열렸다. 아울러 문체부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자 제정한 세종문화상과 한글 및 한국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10월 8일(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부포상을 전수하였다.

한글과 한국어의 발전에 헌신한 분들에게는 ‘한글 발전 유공자’·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2021년에는 ▲ ‘보관 문화훈장’ 고 안상순 전 금성출판사 사전팀장, ▲ ‘화관 문화훈장’ 김칠관 전 인천성동학교 교감, ▲ ‘문화포장’ 강익중 미술가, 윤인구 한국방송(KBS) 아나운서, 세리쿨로바 미나라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총장, ▲ ‘대통령표창’ 김호식 하상복지재단 상임이사, 제주특별자치도, ▲ ‘국무총리표창’ 최낙복 전 동아대 명예교수, 교통방송(TBS) 아나운서팀, 독일의 함부르크 한인학교 등 총 개인 7명과 단체 3곳이 수상자(단체)로 선정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국에서 진행된 문화포장 전수식에 참여하지 못한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은 11월 12일 주 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진행된 문화포장 전수식에 참여하였다. 당일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이원재 주 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가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에게 문화포장을 전수하였다. 전수식 참석자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이원재 대사, 유지성 서기관, 김소원 전문관이 참석을 하였고, 박티백 이스카코비치 이스마일로프 키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 장관 고문, 나지라 투타노브나 아시아은행 설립자(키르기스스탄 미국상공회소 회장), 중앙아시아 한국대학의 서양원 교수와 백태현 교수가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한편 당일 전수식에서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의 문화포장 수상을 축하하는 쿠베세프 볼로트백 두셰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 장관의 감사장과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하는 교육과학부 장관의 표창장을 박티백 이스카코비치 이스마일로프 장관 고문이 전달을 하였다.



키르기스 한국대

한국문화 확산 프로젝트

키르기스 한국대학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관하는 2021년도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인 “중앙아시아 한글도서 지원 및 한국문화 확산 프로젝트”의 키르기스스탄 협력교육기관으로서 키르기스스탄에서 본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키르기스 한국대학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2021년 상반기부터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그 사업 방향을 정하였다. 본 사업의 방향 및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경기지부가 기존에 육성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등학교 학생 동아리(네모상자)를 통해 수집하고 분류한 한글 도서를 키르기스스탄에 배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수집된 총 3,004 권의 도서는 2012년 6월 초부터 11월 초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쳐 배송이 완료되었다. 향후 이 도서는 ‘키르기스 한국대학’ 내에 개보수 되는 도서관에 비치되어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키르기스 한국대학이 진행하는 ‘키르기스스탄 슈콜라(초중고교, 이하 슈콜라)를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슈콜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키르기스스탄 내에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단순 한국 도서 전달 방식을 벗어나,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수집하고 분류한 도서들을 매개체로 키르기스스탄 소재 슈콜라 학생들과 그 직접적인 접촉점을 넓혀 갈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채택한 점이다.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키르기스 한국대학은 먼저 교육 대상 학교 10개 슈콜라를 선정하였는데, 수도인 비슈케크에 2개 슈콜라, 그리고 이전 상대적으로 한국문화의 접근이 힘들었던 추이 주의 8개 슈콜라이다. 비슈케크 소재 학교는 25번 슈콜라와 50번 슈콜라이다. 그리고 추이주 소재 슈콜라는 니즈니 알라르친스카야 슈콜라, 알라메진스카야 2번 슈콜라, 마예프스카야 슈콜라, 리베디노프스카야 1번 슈콜라 김나지움, 콕자르 스카야 슈콜라, 프리고라드나야 슈콜라, 알라미딘스카야 1번 슈콜라, 리베디노프스카야 2번 슈콜라 김나지움이다.

키르기스 한국대학은 기획한 바 성공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2021년 5월에 한국어를 전공하는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강사요원 11명을 선발하여, 6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이르는 사전교육을 진행하였다. 키르기스 한국대학 대상 강사요원 선발의 의미는 슈콜라 학생들과 눈높이 수준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지 사정에 밝은 열정적인 ‘한류’ 세대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각 슈콜라의 수강 대상 학생의 선정은 각 학교에 위임을 하였고, 그 수강생 수는 각 학교별로 20~30명 정도이다. 한편 본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조력자는 교육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슈콜라의 교장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9월 24일(금) 전체 10개 슈콜라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관련자의 합동 상견례 및 회의의 진행하였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2021 현지 교원 보수교육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국민대 국외실습지원사업단(단장 이동은 교수)이 주관한 “2021 현지 교원 보수교육”이 2021년 11월 19일 워크숍으로 마무리되었다.

국립국어원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현지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현지 교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원 재교육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의 4개국 6개 도시에서 사할린 국립대, 카잔 연방대, 이르쿠츠크 국립대, 타슈켄트 국립동방대, 비슈케크 세종학당,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원들이 참여하였다.

카자흐 세계언어대의 교원 20명도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수학습센터(<https://kcenter.korean.go.kr>)를 통해 LMS (language management system) 방식의 관리 하에 한국어 교수 학습 이론과 실제, 어문규범, 교육실습론, 한국어-러시아어 대조언어학, 온라인 수업 활용, 표기법, 화용론, 수업 참관 등 다양한 분야의 교원 재교육을 수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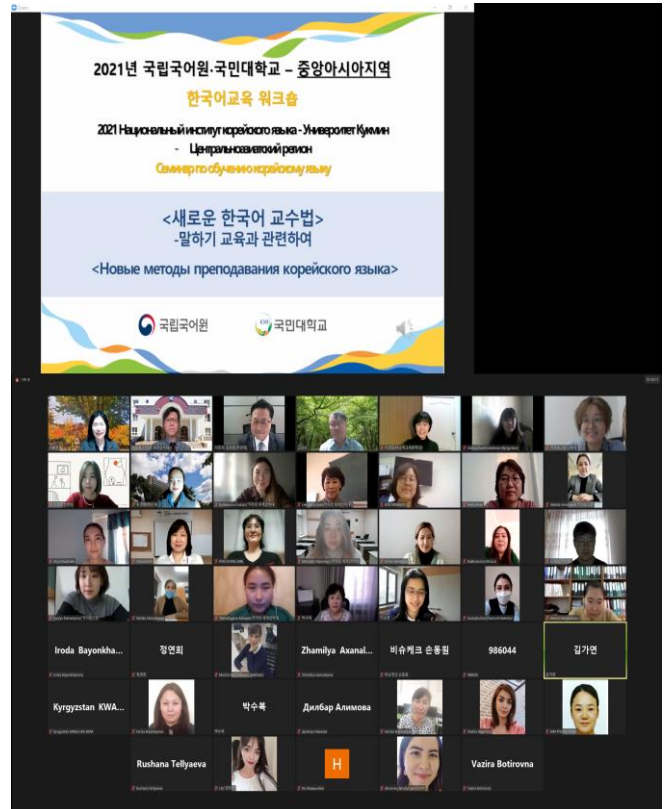
중앙아시아는 교육 환경이 다소 열악한 편이지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기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2017년부터 국립국어원과 국민대가 진행한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사업은 현지의 교원과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습방법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였다.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사업은 2021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현장실습과 온라인학습의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AKS 중핵대학사업 재선정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소장 박 넬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공모한 “2021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사업”에 선정되었다.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체계 확립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확산”을 주제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중핵대학사업에 선정되어 “공존과 소통의 한국학: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가치 창출”을 주제로 2020년까지 다양한 연구 및 교육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최고의 한국학 연구기관으로 자리잡았다. 한국학센터는 이번에 다시 중핵대학사업에 선정되어 “원격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공동시스템 구축”(사업단장 한 넬리)을 목표로 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억 4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카자흐 세계언어대(총장 쿠난바예바 살리마)는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한국학센터의 지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박 넬리 교수에게 최고의 영예인 바이투르시노프상을 시상하고, 장호중 교수(KF 파견교수)를 명예교수로 추대하였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신북방 지역 대학 교원 재교육

2021년 11월 13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21 신북방 지역 대학 한국어 교원 온라인 재교육 프로그램” 개강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희사이버대가 주관하여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현지 교원 및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학개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 발음교수법, 한국어 말하기 교수법, 비대면 온라인 한국어 교육론,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역사, 한국어 교안 작성 실습 등을 교육하게 된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10개 대학(에서 총 58명이 참가하는 온라인 교육은 58시간의 VOD 사전학습과 42시간의 실시간 수업을 통해 총 10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전체 강의의 80% 이상을 이수한 참가자에게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명의의 프로그램 수료증을 발급하게 된다.

KF 대학원성장학생 장학금 전달

2022년 2월 2일 주말마터 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박내천)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학원성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대학원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카자흐 국립대 대학원생 5명(석사 3명, 박사 2명)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대학원생 5명(석사 3명, 박사 2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1월에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장학금 전달식도 예년과 달리 2월로 늦춰졌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달식도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사업은 이미 10년 넘게 꾸준히 지속되면서 우수한 한국학 인재들을 카자흐스탄의 대학원 과정에 적극 유치하여,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